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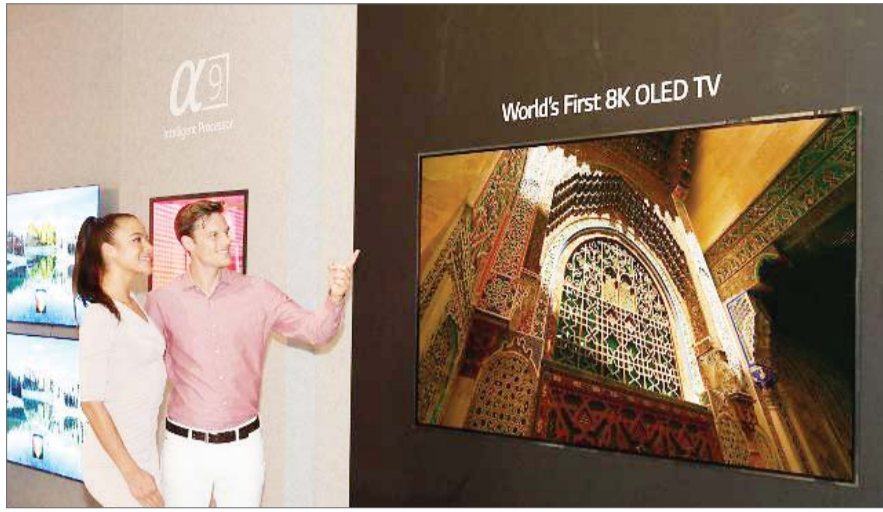
# 고화질 8K TV 출격 임박... 디스플레이업계 '들썩'

삼성·LG, 내달부터 판매 개시  
각 사 디스플레이서 패널 공급  
판매량 늘수록 실적 반등 기대  
시장 확대 분위기에 수혜 전망

삼성전자가 내달부터 8K급 고화질 TV 판매를 시작하면서 TV패널을 공급하는 디스플레이 업체에도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8K TV 판매에 돌입하며 LG전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LG전자의 8K TV패널은 각각 삼성·LG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 8K TV가 양산될수록 각 사의 디스플레이 호실적도 관측되는 이유다.



LG전자 8K OLED TV.

/LG전자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부터 8K 고화질 TV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증가, C E부분 실적이 반등하면서 디스플레이 업계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8K는

현재까지 주로 판매되는 4K보다 해상도가 4배 높아진 고화질 TV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최근 유럽 가전전시회에서 8K QLE

DTV를 공개한 뒤 강력한 마케팅을 시작했다"며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도 업스케일링 기술로 8K TV의 구매 매력을 부각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8년 연말부터 8K TV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진영의 8K 대응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QLED TV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관련 업체들에게 수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TV패널의 주요 공급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8K TV 출시와 QLED TV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올 연말까지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IB업계 전문가는 전망하고 있다.

LG전자도 최근 8K 88인치형 OLED TV를 공개하며 프리미엄 대형TV 시장 선전에 나섰다. 본격적인 판매 일정은 아

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성이 내달부터 판매에 나선 만큼 경쟁사인 LG 또한 비슷한 시기에 출시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LG전자의 TV패널 역시 LG디스플레이가 주로 공급한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최근 독일에서 진행된 IFA2018에서 OLED와 액정표시장치(LCD) TV 모두 8K로 만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8K 콘텐츠가 부족한 점이 시장 확산에 장애물로 남아있지만 8K 시장이 확산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글로벌 업계 1위 삼성이 저해상도 영상을 8K 수준 고화질로 변환해 주는 AI 화질 변환 기술을 선보이면서 8K 콘텐츠 부족 문제 또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부족 문제가 보완되면 8K TV 시장이 커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삼성, 美 1·2·4위 통신사에 5G 장비 공급



미국 2위 AT&T에 공급사로 선정  
연이은 선정으로 북미 공략 기대

삼성전자가 미국 1위 이동사 버라이즌과 4위 스프린트에 이어 2위 통신사업자인 AT&T의 5세대(5G)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AT&T는 최근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을 5G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택했다. AT&T는 미국 애틀랜타, 댈러스, 휴스턴 등에서 올해 5G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장비는 국제표준단체 3GPP가 지난 6월에 발표한 5G NR 규격을 지원하며 39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5G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4G LTE 표준 기반 CBRS 장비 공급 업체로도 선정됐다. AT&T는 CBRS 공유스펙트럼 밴드로 지정된 3.55-3.7GHz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버라이즌과 대용

량 LTE 통신장비와 28GHz 대역의 5G 고정형무선액세스(FWA)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사업을 확대했다. 5G FWA 서비스는 올해 내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다. 5월에는 미국 스프린트와 2.5GHz 대역의 5G 기지국 장비 상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미국에서 상용화된다.

마크 루이스 삼성전자 미국법인 네트워킹사업 담당 전무는 "5G는 전례 없는 사용자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화력·편의성 강화한 '전기레인지 인덕션'

삼성전자 인덕션 모듈 2배 늘려

삼성전자가 화력을 강화하고 전기 공사 없이 플러그만 꽂아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레인지 인덕션 신제품(NZ63N7757CK)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존에 용기에 열을 가하는 인덕션 모듈을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려 화력을 대폭 강화한 '플렉스존 플러스' 기능을 탑재했다. 모듈의 수가 4개로 각 쿠킹존마다 모듈이 있어 면적이 넓은 용기나 다양한 형태의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열 손실이 적고 고온 조리가 가능하다. 쿠킹존마다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해 여러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된다.

인덕션 모듈은 3300와트의 높은 화력을 구현해 고풍, 육수 등과 같이 장시간 가열해야 하는 요리의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강한 화력이 요구되는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도 맛있게 완성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간편하게 플러그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파워코드 타입으로 별도의 전기 공사나 추가 설치 작업이 필요 없



삼성전자 모델이 신제품 '전기레인지 인덕션'(NZ63N7757CK)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다. 상판에는 뛰어난 내구성과 내열성으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 명품 글라스인 유로케라의 세라믹 글라스가 적용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도 쉽다.

세라믹 글라스의 테두리에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부착하여 측면 강도를 보강해 무거운 그릇의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으로부터도 쿡탑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글라스와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무리했다.

삼성전자 '전기레인지 인덕션'은 '프리 스탠딩'과 '빌트인' 2가지 타입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159만~169만원이다.

/안병도기자

## 잘 빠진 외모에 잘 달리기까지... '명불허전 세단'



현대자동차 '더 뉴 아반떼'

날렵하고 깔끔하게 외관 변경  
경차급 연비... 1404만원부터



현대차 더 뉴 아반떼 주행모습.

대한민국 대표 준중형 세단 '더 뉴 아반떼'가 3년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현대자동차의 대표 브랜드이기도 한 더 뉴 아반떼는 혁신적인 외모와 강력한 진 파워트레인을 탑재, 풀체인지급에 가까운 정도로 변화했다. 여기에 1500만원대의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이번에 새롭게 돌아온 아반떼의 시승을 통해 주행 성능과 다양한 편의 기능을 체험했다.

외관은 완벽하게 달라졌다. 기존 헝가리 고날 그릴에서 캐스캐이드 그릴로 변화했다. 어느 한 곳 튀는 곳 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깔끔한 외관은 날렵함과 역동적인 느낌을 담고 있다. 후면부는 트렁크 끝단을 낮추고 소나타 뉴라이즈처럼 번호판을 범퍼 하단의 새로운 블랙커버 디자인에 적용해 시각적인 무게 중심을 낮추어 보다 스포티한 감성으로 재탄생했다. 다만, 후면부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실내는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큰 변

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센터페시아 상단 등에 카본 패턴을 입혀 운동 성능을 시각화했으며 공조기 날개와 버튼 주변에 은색 그래픽 요소를 입혀 고급감을 입혔다. 뒷좌석은 성인 남성이 탑승해도 여유로울 정도로 충분히 넓었다.

시승 코스는 경기 남양주에서 강원 춘천 라테나GC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진행했으며 차량은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가솔린 모델이었다.

더 뉴 아반떼는 디자인뿐 아니라 파워트레인에도 변화가 있다. 차세대 엔진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과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 조합했다. 덕분에 연비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 실제 이날 시승한 차량의 연비는 18.4km/L를 기록했다. 경차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단, 연비를 얻은 반면 주행성능은 다소 떨어진 듯 했다. 평지 주행에서는 못 느꼈지만 오르막길 구간에서 다소 힘들게 느껴졌다. 또 안전사양인 차로이탈방지보조 기능은 너무 깊게 개입해 운전자마다 다르겠지만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대차가 더 뉴 아반떼를 출시하며 내세운 2019년까지의 내수 판매목표 12만 대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뉴 아반떼 가격은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1.6이스타일 1551만원(I-VT 적용 기준, MT 기준 1404만원), 스마트 1796만원, 프리미엄 2214만원 ▲디젤 1.6의 경우 이스타일 1796만원, 스마트 2037만원, 프리미엄 2454만원 ▲LPi 1.6의 경우 이스타일 1617만원, 스마트 1861만원, 모던 2010만원이다.

/양성문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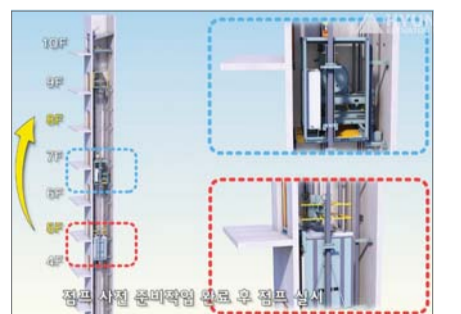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국내 첫 '점프 엘리베이터' 수주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에 적용

현대엘리베이터가 11일 국내 최초로 점프 엘리베이터를 수주했다.

첫 점프 엘리베이터 현장은 현대건설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건설 중인 고급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지하 4층~지상 49층) 8개동, 2784세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현장에 설치될 분속 210m급 엘리베이터 62대를 포함해 총 72대의 승강기를 수주했으며, 이 중 9대를 점프 엘리베이터로 설치한다.

'점프 엘리베이터'는 골조 완성 후 설치를 시작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사 초기에 설치해 골조가 상승함에 따라 기계실도 상부로 이동시키는 공법이다. 골조 공정 중에도 엘리베이터를 인력 및 자재 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승객용으로 전환해 곧바로 사용



점프엘리베이터 상승 설치 개념도./현대엘리베이터

할 수 있다. 건물 층간을 점프하듯 이동해 '점프 엘리베이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호이스트(건설용 승강장치)와 달리 내부 승강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비, 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다"며 "2~3개월의 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건축비 절감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